

위안화 평가절하?! 충남의 수출 전망은?

중국 환리스크 부담 경감, 위안화 국제화, 최근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위안화 절하 압력 해소를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중국인민은행은 8월 11일~13일 3일간 대미달러 기준환율을 전일 대비 각각 1.86%, 1.62%, 1.11% 상향조정하면서 위안화 환율은 총 4.66% 상승했다. 8월 11일에 절하폭(1.86%)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3일 위안화기준환율은 달러당 6,401위안으로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 실물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부양책이다. 중국 수출은 올해 상반기 0.9% 증가에 그친데 이어 7월에는 8.9% 감소했으며, 자국 내 수요부진 및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됐다.

두 번째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기준환율 고시 방식을 시장환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위안화 절하 압력이 높아져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2013년~2014년 5월까지 연속 17개월 동안 3천 833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유출됐다.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미 달러화 절상이 위안화 절상을 유발했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 회복지연과 위안화 절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자본 유출 압력이 거세졌다.

대중 수출: 중간재 확대·소비재 감소, 대세계 수출 경쟁 심화 예상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이다. 對中 중간재 수출은 중국의 수출호조로 인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상반기 대중 수출 가운데 중간재 71.5%, 소비재 5.3%를 차지한다. 반면 對中 소비재 수출은 단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 장기적으로 중국경기 부양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對세계 수출은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에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원/위안 환율 5% 하락시 우리의 對세계 수출은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우리의 대세계 수출물량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소비재 전체 품목의 대중 수출 비중(금년 상반기 기준 5.3%)보다 높은 농수산물(71.0%), 섬유류(15.6%), 플라스틱제품(15.2%)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금년 상반기 전체품목 71.5%)이 높은 반도체(100.0), 컴퓨터(99.6), 고무/가죽제품(99.3), 휴대폰(98.2), 플라스틱(97.5), 철강제품(96.6) 등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및 자급률 제고로 대중국 중간재 수출 확대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됐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5년 48.6%에서 금년 1~7월 30.9%로 하락한 가운데 동 기간 중간재 국내조달지수는 14.5% 상승하면서 중간재 자급률이 향상됐다. 한편 세계시장(중국 제외)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높은 품목의 수출부진이 예상된다. 특히 한·중 대세계 수출경합도가 평균수준(2014년 0.374) 이상으로 수출경쟁이 치열한 가전(0.572), 휴대폰(0.745), 철강(0.462), 기계류(0.448)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이다.

충남은 대중 수출 비중(42.4%)이 높고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이 많아 중국경기 회복과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여부가 수출 향방에 중요

특히 충남의 국가별 수출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올해 1~7월에 5.3%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국 수출(-2.8%)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가 충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의 수출 향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충남의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23.1%)와 컴퓨터(6.1%), 자동차부품(4.5%), 석유화학 중간원료(3.9%) 등이 차지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한다면 충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중국과의 대세계 수출경합이 치열한 무선통신기기(10.5%)와 전자응용기기(8.0%) 등의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결제통화 다변화, 환리스크 관리 강화, 원가절감, 한중 FTA 활용 등 노력 필요

중국인민은행이 당초 목표한 환율 수준(6.4~6.5위안)을 달성한 만큼 위안화의 추가 절하 및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위안화 자본유출 압력으로 인해 평가절하가 기초적일시 충남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무역업체는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결제통화 다변화, 환리스크 관리 강화, 원가절감, 한중 FTA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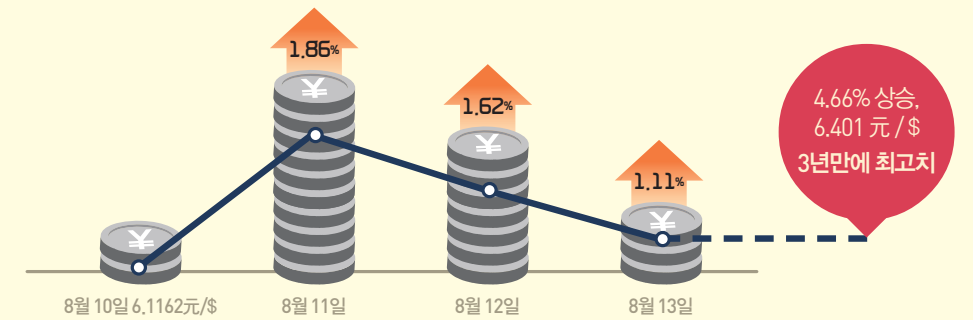
저자_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위안화 평가절하는 충남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쉽게 이해하는 평가절하란, 외국화폐단위에 대하여 한 나라의 화폐단위가 지니는 교환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기축통화인 1달러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위안화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

중국인민은행의 대대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위안화 평가절하의 우리 수출 영향은?



충남 주요 산업 전망은?



우리의 향후 노력은?

